

“국경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자, 눈의 고장이었다.”

일본 최초의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소설 [설국]에서

니가타 현을 눈의 고장으로 묘사하고 있다.

순백의 눈이 살을 에는 칼바람을 따뜻하게 느껴지게 해주는 설원의 땅 니가타 현을 답사하였다.



포항시는 올해 국내 아마추어 비치발리볼 대회를 7월에서 8월동안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.

대회에는 남자부, 여자부 선수들이 각각 참여할 수 있으며

각 부문별로 우승 상금이 정해져 있어 치열한 대회가 예상된다.

또한 입상한 팀은 포항시에서 프로 영입을 제안하는 특전까지 제공할 방침이다.

